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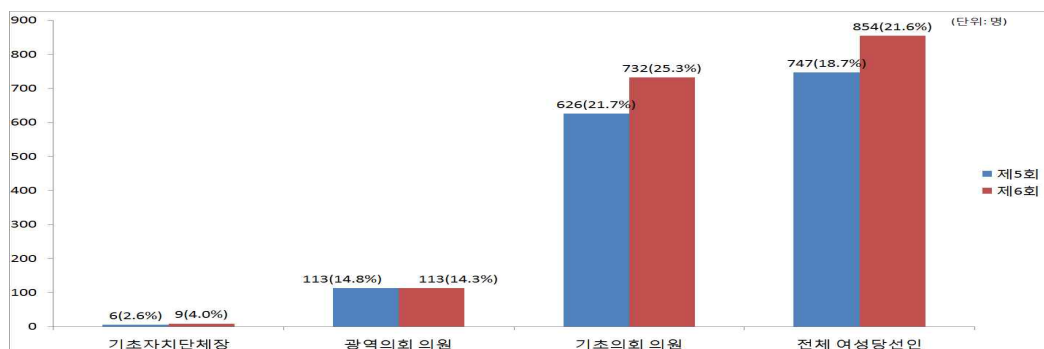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14.6.19.(목)	문의	김원홍 연구위원 (02-3156-7101)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4.6.19.(목)
	※ 총 5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인 광역은 재선이, 기초는 초선 비율 높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위해 과제 모색 필요

□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 등에 여성 진출이 다소 약진하여 향후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여성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선거에서 여성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장 9명(4.0%), 광역의회 의원 113명(14.3%) 기초의회 의원 732명(25.3%)으로 나타났으며, 총 3,952명의 당선인 중 여성이 854명으로 21.6%를 차지하여 제5회 때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6명(2.6%), 광역의회 의원 113명(14.8%), 기초의회 의원 626명(21.7%), 교육감 1명(6.3%), 교육의원 1명(1.2%)의 여성 당선인이 나타났으며, 총 3,991명의 당선인 중 여성이 747명(18.7%)를 차지함.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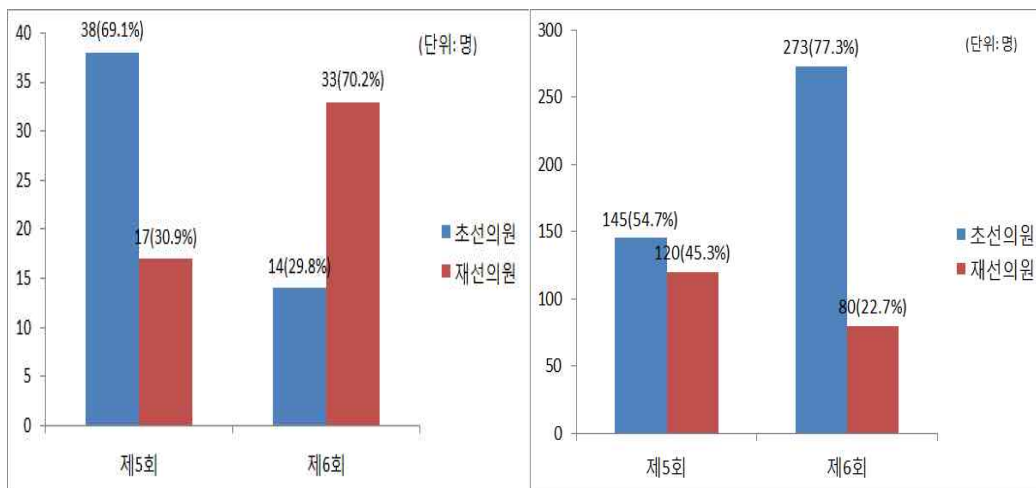
□ 이렇게 여성당선인이 다소 늘어난 것은 여성 후보자수의 증가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 이번 선거과정 초기에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쟁점이 부각되면서 그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들이 추진력을 받지는 못했으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약진으로 인한 여성정치인의 수적 확대 및 세력화가 이번 선거에서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여성 입후보자수 비교 〉

구분		5회			6회			여성비율 증감 (F-C)
		전체(A)	여성(B)	비율 (C=B/A *100)	전체(D)	여성(E)	비율 (F=E/D* 100)	
광역단체장		55	3	5.5	57	1	1.8	-3.7
기초단체장		749	26	3.5	694	40	5.8	2.3
광역 의원	지역구	1,764	154	8.7	1,719	198	11.5	2.8
	비례	266	179	67.3	228	161	70.6	3.3
광역의원 합계		2,030	333	16.4	1,947	359	18.4	2.0
기초 의원	지역구	5,822	551	9.5	5,377	757	14.1	4.6
	비례	909	727	79.9	742	668	90.0	10.1
기초의원 합계		6,731	1,278	19.0	6,119	1,425	23.3	4.3
교육감		74	5	6.8	71	2	2.8	-4.0
교육의원		269	7	2.6	10	0	0.0	-2.6
계		9,908	1,652	16.7	8,898	1,827	20.5	3.8

- 여성당선인의 초선 여부를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제5회에서는 초선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38명, 69.1%), 이번 제6회 선거에서는 초선의원(14명, 29.8%)보다는 재선의원(33명, 70.2%)이 더욱 많았다.
- 기초의회의 경우는, 지난번에 비해 초선의원이 더 많았다. 제5회에서 초선의원은 145명(54.7%), 재선의원이 120명(45.3%)이었던 것에 비해, 금회 선거에서는 초선의원이 273명(77.3%), 재선의원이 80명(22.7%)이었다.
- 가장 기초적인 정치 입문과정으로 볼 수 있는 기초의회에의 초선비율이 높은 이유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을 제외하고 광역의회의 재선 비율 증가는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광역의회 여성당선인 초선 여부> <기초의회 여성당선인 초선 여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홍 연구위원은 “①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여성지방자치단체장을 늘리기 위하여 당우세 지역에 꾸준한 여성 후보 전략공천 확대 ② 국회 및 지방의회에 남녀동수 정치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재육성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여성정치 경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 한편, 국회의원 황인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6월 24일(화)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에서 ‘6.4 지방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 과제’ 를 주제로 제87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안전행정부와 한국여성의정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야를 아울러 범여성계가 머리를 맞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평가하고, 향후 남녀동수 정치 참여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붙임 1 제87차 여성정책포럼 개요

- 주제 : 6.4 지방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 과제
- 주최 : 국회의원 황인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후원 : 안전행정부, (사)한국여성의정
- 일시 및 장소: 2014.6.24.(화) 14:3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
- 프로그램

14:30~15:00	등 록	
15:00~15:20	개 회 식	<p>사 회 :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 팀장)</p> <p>인 사 말 : 황인자(국회의원)</p> <p>최금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p>
6.4 지방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 과제 좌장: 이수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 센터장)		
15:20~16:00	발 표	발표 1. 2014년 지방선거 여성참여 평가와 과제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남녀동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16:00~16:40	지정토론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최순영 (제17대 국회의원/현 한국여성의정 이사)
16:4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황인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체신부 100년 역사상 최초의 고위직(5급 사무관)으로 출발, 이후 23년간 정무장관(제2)실, 행정자치부, 여성부, 서울시를 거치며 여성정책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 직능특보로 정치 입문, 이후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